

세계화시대와 가정학 연구*

A Prospective Study: Human Ecology-Based Researches in Korea Facing Global Promotion*

순천향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박영숙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최혜선
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윤인경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이승신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이주리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Professor : Young-sook Park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 Hei-Sun Choi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n Teacher's University

Professor : In-Kyung Yoon

Department of Consumer & Housing, Konkuk University

Professor : Seung Sin Lee

Department of Child Welfare, Joong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Juri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미국가정학회지 분석 |
| II. 연구방법 | V. 결론 및 제언 |
| III. 각 분야의 연구 현황분석 | 참고문헌 |

Corresponding Author: Seung Sin Lee, Department of Consumer & Housing,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Tel: 02-450-3778

Fax: 02-444-1058 E-mail: Lchung@konkuk.ac.kr

* 본 연구는 대한가정학회 연구과제공모에 선정되어 학회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2003년도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Abstract>

Human Ecology researches studying human life patterns in Korea are on the same tracks of recent global promotion in Korea as that of other academic studies. In this changing academic atmosphere, Human Ecology-based researches are in demands of suitable research topics and methods.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present research situations of Human Ecology-based subdivisional fields, including food and nutrition, clothing and textiles, child studies, family studies, home management, housing studies, consumer sciences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by an increasing need in the society of KHEA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The study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trends of research topics and methods shown in the papers published in major academic periodicals in Korea as well as world-class (SCI, SSCI) journals in order to predict the future for Ecology-based studies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ll periodicals from January, 2000 to August, 2003, listed in the Korean Research Foundation and from world-class journals comparable to the former. Twenty-six periodicals were chosen for analysis, including papers with authors of ecology-based, field faculty at colleges or universities.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nd world-class research topics and methods. In order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two, we suggested that serious consideration be given to the research's application-ability toward human beings, which would be the home-ecology study's identity. The same criteria in these fields as used in other natural science fields are not suitable for supporting and evaluating research proposals and outputs, and recent global academic promotions may not be desirable in some respects. However, they do present an opportunity to expose Korean researcher's to world-class scientific societies and upgrade their studies. These efforts should stimulate the field of Human-Ecology studies and enhance the recognitions of these fields among future students.

주제어(Key Words): 세계화(global), 생활과학 근거(Human Ecology-based), 정기간행물(periodicals), 연구주제(research topic), 연구방법(research method)

I. 서론

세계화는 교통, 통신, 정보산업의 발달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를 다양한 분야에서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는 학문영역에서의 강의나 연구의 변화도 가져왔다고 본다. 그 결과 현재의 대학사회는 연구의 국제적 협력과 연구결과의 국제적 발표를 강조하여 학문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학문의 국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학문 연구에서 연구주제, 연구방법과 결과발표 및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이 추세는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시대의 변화에서 가정학 학문 연구를 점검하여 우리나라 가정학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가정학이 세계화시대에서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다.

가정학자들은 연구결과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와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통하여 주로 발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한가정학회 및 각 분야별로 세부학회에서 많은 학회지가 발간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유관학술단체에서 많은 학술대회, 학회지가 있다.

가정학은 인간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생활이 나타남에 따라 가정학 연구와 교육의 대상도 더욱 넓어지는 실정이다. 학문의 국제화와 고유생활의 연구라는 가정학 연구의 특성을 모두 살리기 위한 연구주제의 탐색, 연구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가정학 연구는 양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나 근년에 생활의 고유성을 연구하는 데에 질적 연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대한가정학회뿐 아니라 각 전공분야마다 연구의 동향, 주제와 연구방법 등을 연구한 경

우는 있었다(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I(1977), II(1989), III(1990),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한 가정학회지 논문 내용분석: 1959년부터 1994년까지 (1995), 1950-2000년의 <가정학의 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2001) 등 다수의 연구 등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학문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오늘에 이르러 최근,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나타난 가정학의 분야별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 학술적 측면과 활용도를 평가한 자료가 부족한 면이 있다. 학문의 국제화와 고유 생활의 연구라는 가정학 연구의 특성을 모두 살리기 위한 연구주제의 탐색, 연구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이에 가정학 분야의 모학회인 대한가정학회에서 분야별로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외국학술지의 게재상황을 파악하며, 세계화를 추구하는 현 사회에서 가정학연구의 발전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 연구 방법

최근의 우리나라 가정학 연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우선 국내 학술지 발간 실태를 파악하고 최근 3여년간 (2000년 1월호부터 2003년 8월호까지) 각 학회지에 수록된 가정학-base의 논문을 찾아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분류하였다. 외국의 가정학 연구 실태를 알기 위해 유관 외국학회지 발간 실태와 주요 외국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가정학-base의 논문을 찾아 연구주제도 파악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앞으로의 국내학술지와 외국학술지의 연구주제, 활용도 등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분석대상 학술지는 분야별로 가정학의 3종<표 1>을 비롯하여 식품영양학의 7종<표 1>, 의류학의 6종<표 5>, 아동학의 3종<표 9>와 가족학의 3종(1종은 아동학과 중복)<표 12>, 가정관리학/소비자학의 3종<표 15>, 주거학 2종<표 19> 및 가정교육학의 2종<표

<표 1> 식품영양학 분야의 분석대상 학술지

학술지 명	학진등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식품영양논문수
01.한국영양학회지	01상 등재	8	8	10	6	32권(355편)	329편(92.7%)
02.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01하 등재	5	5	6	4	20권(249편)	228편(91.6%)
03.한국조리과학회지	03상 등재	6	6	6	3	21권(302편)	235편(77.8%)
04.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00 등후	5	5	5	3	18권(192편)	146편(76.0%)
05.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03 등후	6	6	6	2	20권(178편)	128편(71.9%)
소계(1)		30	30	33	20	111권(1276편)	1066편(83.5%)
12.한국식품과학회지	01하 등재	6	6	6	3	21권(622편)	129편(20.7%)
13.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02하 등재	6	6	6	3	21권(656편)	372편(56.7%)
소계(2)		12	12	12	6	42권(1278편)	501편(39.2%)
21.대한가정학회지	01상 등재	12	12	12	8	44권(509편)	32편(5.4%)
22.한국생활과학회지	03 등후	4	4	4	3	15권(142편)	14편(9.9%)
23.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03 등후	2	2	3	2	8권(53편)	15편(28.3%)
총계(3, 총계1+2+가정학)		60	60	64	38	220권(3241편)	1628편(50.2%)

식품영양학과, 영양학과, 식품과학과, 조리과학과 등의 학과(또는 전공)에 소속된 저자가 포함된 논문임.

11. Food Science and technology (01하반 등재, 한국식품과학회), 14. Nutraceuticals and Food (01년 후보, 한국식품영양과학회), 06. Nutritional Sciences (03년 후보, 한국영양학회), 07. 대한영양사협회지 (03년 후보, 대한영양사협회), 15. 한국식품영양학회지 (03년 후보, 한국대학(23년제)식품영양학교수협의회)의 5개 학술지는 미포함됨.

는 타 학문에 침투된 측면도 없지 않다. 다학제간 연구는 학과의 연대보다 연구주제의 연대가 강조되어야 할 것 같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논문 수는 매년 476~444편으로 약간 증가한 정도로서 별 차이가 없었다. <가정학의 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에서 분석한 1990~2000년 연구주제에 비해서 2000년 이후에 섭취실태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고(42편/10년→367편/3년) 식품화학/인체대사/동물대사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식품(식물)추출물이나 영양소의 기능,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에 초점을 둔 것이라 본다면 질병 영양 및 기능성 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대중할 수 있다(629편/10년→636편/3년).

학술지에 따라 연구주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달라서, 이학 분류에 속한 학술지의 총계(1)에 비해 한국영양학회지는 동물대사와 인체대사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는 섭취실태와 영양교육이, 한국조리과학회지는 조리학이,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는 급식관리가,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는 식문화의 비중이 높았다. 또 농수산 분류에 속한 학술지의 총계(2)에 비해 한국식품과학회지는 식품화학과 조리학, 한

국식품영양과학회지는 식품화학과 동물대사가 높게 나타났다. 대안가정학회지에는 식문화 주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3) 학술지별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식품영양학 분야의 연구방법을 5가지로 나누어 활용비율을 구한 결과(표 3), 실험(62%)과 설문조사(31%)가 93%를 차지하였으며 그밖에 면접조사(3%)와 문헌조사(32%)가 일부 활용되었다. 학술지에 따라 많이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달라서, 한국영양학회지(60%)와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52%)에는 실험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한국조리과학회지, 한국식품과학회지 및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도 실험이 대부분(81-99%)이었다. 식품(관련) 연구는 주로 실험방법을 사용하므로 후자 3개의 학술지들이 식품(관련) 연구 위주의 학술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대안가정학회지에는 설문조사가 가장 많았다(63-72%). 특히 면접조사는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에서, 문헌조사는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에서, 질적 연구는 대안가정학회지에서 다른 학술지보다 활용 비

<표 3> 학술지별 연구방법

편(%)

학술지명	실험법	설문조사	면접연구	문헌연구	질적연구	기타	계
한국영양학회지	197 (60)	97 (29)	17 (5)	10 (3)	3 (1)	5 (2)	329(100)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35 (15)	160 (70)	17 (7)	10 (4)	3 (1)	3 (1)	228(100)
한국조리과학회지	188 (81)	38 (15)	2 (1)	5 (3)	-	2 (1)	235(100)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44 (30)	92 (63)	5 (3)	5 (3)	-	-	146(100)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66 (52)	47 (37)	2 (2)	13 (11)	-	-	128(100)
소계(1)	530 (50)	434 (41)	43 (4)	43 (4)	6 (1)	10 (1)	1066(100)
한국식품과학회지	128 (99)	1 (1)	-	-	-	-	129(100)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29 (88)	33 (9)	7 (2)	2 (1)	-	1 (0)	372(100)
소계(2)	457 (91)	34 (7)	7 (1)	2 (0)	-	1 (0)	501(100)
대안가정학회지	5 (16)	23 (72)	1 (3)	-	2 (6)	1 (3)	32(100)
한국생활과학회지	3 (21)	11 (79)	-	-	-	-	14(100)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8 (53)	7 (47)	-	-	-	-	15(100)
총계	1003 (62)	509 (31)	51 (3)	45 (3)	8 (0)	12 (1)	1628(100)

식품영양분야 : 실험- 관능검사 포함, 질적연구- 관찰법, 심층면접법 등, 기타- 공정과정, 개발

22)의 총 26종이었다.

III. 각 분야의 연구 현황 분석

1. 식품영양학 연구

1) 분석대상 학술지

식품영양학 분야에서 현재까지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 6종, 등재후보 학술지는 6종이며 이 12종 중에서 7종은 자연과학분야로, 나머지 5종은 농수산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문지 3종, 영양사협회학술지 및 식품영양학회지의 5종 학술지는 분석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식품영양학 분야에서 등재지 5종, 등재후보지 2종와 가정학 분야에서 등재지 1종, 후보지 2종의 총 10종 학술지를 분석하였다.

자연과학분야 5종 학술지에 실린 논문 1276편 중

에서 식품영양학과의 교수가 포함된 논문은 83.5% (1166편)로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함을 알 수 있다(〈표 1〉). 반면 농수산학 분야 2종 학술지의 1278편 중에는 식품영양학과의 교수가 포함된 논문은 39.2%(501편)였고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56.7%)보다 한국식품과학회지(20.7%)에 실리는 비율은 더 낮았다. 대한가정학회지의 식품영양학 논문은 5.4%(32편)에 불과하여 통합 학술지에서의 활동은 매우 저조하였다.

2) 학술지별 연구주제

식품영양학 분야의 연구주제를 크게 8가지로 나누어본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섭취실태(23%), 조리학(22%), 식품화학(18%), 동물대사(15%), 급식관리(7%), 인체대사(6%), 영양교육(5%), 식문화(4%)의 순이었다. 식품화학이나 동물대사의 연구주제는 다른 학문과 중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가정학-base의 식품영양학 특성보다

〈표 2〉 학술지별 연구주제

편(%)

학술지명	식품화학	조리학	동물대사	인체대사	섭취실태	식문화	영양교육	급식관리	기타	계
한국영양학회지	48(15)	-	87(26)	59(18)	88(27)	9(3)	23(7)	15(5)	-	329(100)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	2(1)	1(0)	16(7)	128(56)	5(2)	37(16)	34(15)	5(2)	228(100)
한국조리과학회지	41(17)	138(60)	9(5)	2(1)	2(8)	7(3)	2(1)	15(7)	-	235(100)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7)	24(16)	8(5)	-	52(36)	12(8)	6(4)	33(23)	1(1)	146(100)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22(17)	42(33)	8(6)	3(2)	29(23)	14(11)	6(5)	4(3)	-	128(100)
소계(1)	121(11)	206(19)	113(11)	80(8)	318(30)	47(4)	74(7)	101(9)	6(1)	066(100)
한국식품과학회지	54(42)	55(43)	17(13)	2(2)	1(1)	-	-	-	-	129(100)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115(31)	89(24)	114(31)	12(3)	23(6)	3(1)	9(2)	7(2)	-	372(100)
소계(2)	169(34)	144(29)	131(26)	14(3)	24(5)	3(1)	9(2)	7(1)	-	501(100)
대한가정학회지	2(6)	3(9)	-	1(3)	14(44)	8(25)	3(9)	1(3)	-	32(100)
한국생활과학회지	-	3(21)	-	1(7)	6(43)	1(7)	3(21)	-	-	14(100)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3)	4(73)	2(13)	-	6(40)	-	-	1(8)	-	15(100)
총계	294(18)	360(22)	246(15)	96(6)	368(23)	59(4)	89(5)	110(7)	6(0)	1628(100)

식품화학: 비일상적 식재료/추출물의 기능/물성, 성분 분리, 미생물/발효학, 공정, 가공품 개발
 조리학: 음식/식재료의 물성, 음식/메뉴 개발, 음식의 저장성 동물대사: 식품성분/영양소의 기능, 개체/조직 단위
 인체대사: 영양소 균형, 임상적 비교, 섭취실태 및 식행동 : 식품/영양소 섭취실태, 소비실태,
 식문화: 식생활 습관(장기적, 지역적), 식생활관리, 외국인 특성 영양교육: 영양지식, 상담, 영양판정 및 도구,
 기타: 역학, 보건학 등

〈표 4〉 식품영양학 분야의 국제학술지(JADA, AJCN, JFS 2003년 1호) 연구주제 비교

<p>〈외국〉</p> <p>여성의 혈청 지질과 지방산 조성에 대한 생선유의 n-3 fatty acids과 γ-linolenic acid 보충 효과 고지방저당 및 저지방고당의 동일열량 식사를 하는 정상 또는 혈중고인슐린 사람의 간 지방신생합성 phytate-rich 식사에서의 비헴-철 흡수는 돼지고기 소량 추가로 증가 부적절한, 과잉의 수유기의 체중증가를 예측하는 바이오심리사회적 모델에서의 수정가능한 행동 요인 노인 푸드스텝프 참여자와 유자격 비참여자는 영양소 섭취량이 아니라 영양 위험도에서 다르다 Title IIIc 영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에서 혈중 고-homocystein 과 vitamin B-12 결핍 인삼잎 추출물의 항미생물 특성 대구살의 조리전후 chlorpyrifos residues</p>
<p>〈한국〉</p> <p>Comet Assay를 이용한 Flavonoids와 항산화 비타민의 인체임파구 세포DNA 손상보호효과 김치 용매분획이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 토끼의 심장, 신장 및 폐의 항산화 효소계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성 만성 질환자의 특수 영양 및 건강보조 식품의 섭취실태 푸드뱅크사업 수혜자의 실태분석 및 이용편의 평가 동충하초 품종별 영양성분 비교 단백질 대체량을 달리한 백설기의 저장기간과 온도에 따른 관능적 및 기계적 특성</p>

율이 높았다.

4) 최근 국내외 학술지 연구주제의 비교

2003년 1호에 실린 J Am Diet Assoc (Impact Factor 1.483, 14/26편, 편수가 적어 9호를 추가), Am J Clinical Nutrition (IF 5.601, 16/33편) 및 J Food Science (IF 1.188, 14/68편)의 논문제목을 살펴보았는데, 대표적 학술지 3개만을 선정하였기에 양적 의미는 없고 연구주제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표 4〉). 그밖에 미국보다 영국이나 기타 국가의 연구가 많이 실리는 J Nutrition(IF 3.620, 10/31편)에서도 카테고리별로 영양소의 분자생화학 2편, 영양소-gene 관계 1편, 인체영양과 대사 4편, 영양소대사 1편, 영양소필요량 1편, 영양 신경학 1편으로서 그 중 6편이 인체 연구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동향을 외국과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영양학회지(IF 0.42, IF는 이승신(2002)의 미공개자료임),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IF 0.78), 한국조리과학회지(IF 0.21),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IF 0.34),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IF 0.05), 한국식품과학회지(IF 확인안됨),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IF 0.29)의 2003년 1호, 2호의 연구주제를 분석하였다. 각 연구주제별로 보면 동물대사에서는 천연물이나 그 추출물(버섯,

녹즙류, 이소플라빈, 식물, 오리, 고아밀로즈전분, 원적외선 처리 쌀, 차, 김치)의 기능, 즉 효소활성과 혈액성상, 세포(암세포)에의 보호(저지)의 순으로 연구하였다. 인체대사에서는 골대사, 무기질 균형, 혈중 지질 성상, 장흡수와 비만을 주제로 하였으며 식품/영양 섭취실태는 중등학생과 대학생, 임신부, 학령전 아동과 노인, 질환자(비만아동, 장애아동, 난소절제 여성, 만성질환 노인, 고혈압, 위암, 당뇨, 유방암)와 빈곤자의 순이었다. 영양교육에서는 인터넷 관련, 영양위험군 스크리닝도구, FFQ 개발, 이론적 섭취행동, 영양표시의 순이었다. 단체급식에서는 위생(급식소, 직원, 기기, 조리법, 음식)이 가장 많았고 직원, 학교급식과 경영기법, 영양서비스 등을 연구하였다. 식품화학에서는 성분분석이 가장 많았고 가공, 성분특성, 저장의 순이었으며 조리과학에서는 품질특성이 많아서 김치 주제가 단연 많았고 떡, 케익, 채소반찬, 병과와 과일 등이었다.

최근 ADA의 박사회원 및 연구영양사분과 회원들은 꼽은 필요한 연구분야로 1/2정도가 behavioral & social sciences(eating에 영향주는 행동의 이해/수정 연구), 1/5정도가 nutritional science(그 중 1/3는 임상영양, 1/4은 특수 disorder/집단의 영양필요량 설정, 각각 0.2% 정도가 보충제/식품성화합물/대체치

료, 영양biomarker/평가지표, 식품/영양과 유전요인, 전식품/영양소/약/보충제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17%가 dietetics(그 중 1/2는 식사실천 후의 영양중재 평가, 1/6은 영양사교육) 등으로 답하였다(Myers 등 2003). 우리도 기초적인 영양학 연구도 중요하지만 사회·행동 측면에서 접근하는 실천적인 영양학 연구를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2. 의류학 연구

1) 분석대상 학술지

의류학 분야의 논문들이 게재되는 학술지로는 현재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 2종과 등재후보 학술지 7종이며, 분야별로는 자연과학분야 7종, 사회과학분야 1종, 예술체육분야 1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9종 학술지의 의류학 논문 수는 <표 5>와 같이 한국의류학회지 30%(551편), 복식 19%(358편), 복식문화연구 13%(241편),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197편), 패션비즈니스 10%(193편)의 순이었다. 또한 연도별로는 2000년 451편, 2001년 512편, 2002년 547편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 학술지별 연구주제

의류학의 연구주제를 명확하게 분류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수량적 파악을 위하여 유사분야를 묶는 방법을 택하였다. 크게 피복과학(의류재료/관리, 피복환경), 의복구성(의복구성, 의복생산), 패션마케팅(패션마케팅, 의상사회심리) 및 복식디자인(디자인, 복식미학, 복식사)의 4 분야로 나누고 분류 판단이 어려운 것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최근에는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인접학문과 또는 의류학 내에서의 연계연구가 늘면서 분야가 중복되었다.

학회에 따라 지향하는 바가 차이가 있고 따라서 게재 논문의 성격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대한가정학회지와 한국의류학회지는 비교적 주제별로 균형적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복식지에는 복식디자인(68%)이, 복식문화연구에는 패션마케팅(40%)과 복식디자인(38%)이, 패션비즈니스에는 복식디자인(49%)이, 한복문화에는 복식디자인(91%, 특히 복식사가 72%로 압도적)이, 의류산업학회지에는 피복과학(39%)이 높았다.

연구주제를 앞의 네 분류로 분석한 결과 복식디자인(39%)과 패션마케팅(31%) 분야의 연구가 많았다(<표 6>), 이를 다시 소분류별로 보면, 피복과학에

<표 5> 의류학 분야의 분석대상학술지

학술지명	학진통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의류학 논문수
01.한국의류학회지	01 등재	8	11	10	8	37권(551편)	551편(100%)
02.복식	99 등후	8	8	8	5	29권(358편)	358편(100%)
03.복식문화연구	01 등후	6	6	6	4	22권(241편)	241편(100%)
04.한국의류산업학회지	02 등후	5	5	6	4	20권(197편)	197편(100%)
05.패션비즈니스	03 등후	4	5	6	3	18권(193편)	193편(100%)
06.한복문화	03 등후	2	3	4	2	11권(118편)	118편(100%)
소계(1)		33	38	40	26	137권(1658편)	1658편(100%)
21.대한가정학회지	01상 등재	12	12	12	8	44권(592편)	135편(23%)
22.한국생활과학회지	03 등후	4	4	4	3	15권(142편)	54편(38%)
23.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03 등후	2	2	3	1	8권(65편)	4편(6%)
소계(2)		18	18	19	12	67권(799편)	193편(24%)
총계		51	56	59	38	204권(2,457편)	1,851편(75%)

〈표 6〉 학술지별 연구주제

편(%)

학술지명	년도	피복과학분야		의복구성분야		패션마케팅분야		복식디자인분야			기타	계
		재료/관리	피복환경	의복구성	의복생산	패션마케팅	의상사회심리	디자인	미학	복식사		
한국의류학회지	소계	101(18)	20(4)	101(18)	6(1)	158(29)	66(12)	32(6)	38(7)	26(5)	3(1)	551(100)
	합계	121(22)		107(19)		224(41)		96(18)			3(1)	
복식	소계	5(1)	0(0)	23(6)	1(0)	63(18)	20(6)	70(20)	69(19)	104(29)	3(1)	358(100)
	합계	5(1)		24(6)		83(24)		243(68)			3(1)	
복식문화연구	소계	10(4)	3(1)	36(15)	1(0)	80(33)	17(7)	22(9)	36(15)	34(14)	2(1)	241(100)
	합계	13(5)		37(15)		97(40)		92(38)			2(1)	
한국의류 산업학회지	소계	60(30)	17(9)	32(16)	4(2)	23(12)	10(5)	13(7)	16(8)	15(8)	7(4)	197(100)
	합계	77(39)		36(18)		33(30)		44(23)			7(4)	
패션비즈니스	소계	9(5)	3(2)	20(10)	3(2)	51(26)	7(4)	41(21)	41(21)	14(7)	4(2)	193(100)
	합계	12(7)		23(12)		58(30)		96(49)			4(2)	
한복문화	소계	6(5)	-	2(2)	1(1)	2(2)	-	13(11)	9(8)	85(72)	-	118(100)
	합계	6(5)		3(3)		2(2)		107(91)			-	
대한가정학회지	소계	19(14)	5(4)	31(23)	3(2)	38(28)	15(11)	10(7)	5(4)	8(6)	1(1)	135(100)
	합계	24(18)		34(25)		53(39)		23(17)			1(1)	
한국생활과학회지	소계	7(13)	3(6)	18(33)	1(2)	12(22)	5(9)	1(2)	3(6)	4(7)	-	54(100)
	합계	10(19)		19(35)		17(31)		8(15)			-	
한국지역사회 생활과학회지	소계	-	1(25)	-	-	-	1(25)	1(25)	-	1(25)	-	4(100)
	합계	1(25)		-		1(25)		2(50)			-	
총 계	소계	217(12)	52(3)	263(14)	20(1)	427(23)	141(8)	203(11)	217(12)	291(16)	20(1)	1,851
	합계	269(15)		283(15)		568(31)		771(39)				(100)

서 피복재료/관리의 12%, 피복환경의 3%를 합해 15%를 차지하였다. 의복 착용시 심미성, 쾌적성, 안전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소재와 가공, 물성변화(드레이프성, 방추성, 열이나 수분이동특성, 속건성, 투습방수성, 보온성, 방염성, 대전성, 항균성, 방향성 등 물리, 화학적 성질)의 주제가 많았다. 특히 근래에는 패션성/감각성에 의해 의류 제품이 좌우되기 때문에 기능성 가공/구조의 감성에의 영향, 주관적 감각치와 역학적 물성치간 연계성 등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또 환경 보존의 사회문제화에 따라 의류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과정의 단계별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다양한 계면활성제와 오염 세척성의 관계 등의 연구도 꾸준하다. 염색에 관해 특히 다양한 천연소재를 이용한 자연염색, 환경친화적 접근들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피복환경학은 인간-의복-환경의 총체적인 체계에서 착용시의 온열생리적 반응이나 주관적 온열감, 쾌적감, 다양한 작업조건에 적합한 기능복 설계 등 일상복 뿐 아니라 각종 작업복, 침구류, 방호복, 산업안전복 등 연구영역을 넓히고 있다.

의복구성의 연구는 15%(1990년대, 14%)로서 가장 많은 연구주제는 인체계측/체형(35%)으로서 그 대상이 성인여자를 비롯하여 유아, 아동, 청소년, 중년, 노년 등 남녀 전 연령층을 총망라하였다. 특히 외국인(일본, 중국, 몽골, 미국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우리와 비교한 연구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볼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그밖에 인간공학적인 연구(23%, 착의시 신체적합성/동작시 적응성 평가, 기

능성 의복 개발, 특수체형/장애인 의복설계 등)와 패턴 설계(20%)가 많았는데 역시 남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부위도 구간부로부터 특정한 부위(어깨, 칼라, 소매, 바지 등)까지 다양하였으며 의류치수체계(11%)의 관심이 높았다. 의복생산공정 및 봉제(1%)에는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전반적으로 과거의 연구경향과 비교하면 체형, 패턴, 치수의 연구가 다소 낮아졌고 보다 다양한 인간공학적 접근으로 관심이 다양하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도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패션마케팅(23%)에서는 소비자 구매행동(36%)와 패션마케팅환경(4P's)(30%)이 많았으며 특히 패션마케팅환경에 대한 논문이 증가하여 글로벌 시대에 그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며, 대부분 여성이 연구 대상이었다. 의상사회심리(8%)에서는 외모와 이미지, 가치관, 사회계층, 자기개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복식디자인(39%)의 연구는 다시 복식디자인, 복식미학, 복식사로 나눌 수 있다. 복식디자인(11%)에서는 스포츠웨어, 일상복, 직업복 등 다양한 아이템의 의류 패션제품 디자인 개발(7%)들이 포함되었으며, 복식미학(12%)에서는 색채 선호도, 색채 이미지와 시각적 감성(7%),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의

디자인 미적 특성, 조형미(5%) 등이 연구되었으며 기타 영화나 오페라, 연극 등 무대의상, 복식에 표현된 미의식,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미적 가치와 조형성 등 다양하였다. 복식사(16%)를 세분화하면 한국복식사 24%, 동양복식 및 복식사 8%, 서양복식사 9% 등을 차지하였고 우리나라 복식과 동양 복식(중국, 일본, 몽골, 중앙아시아 등)이나 서양복식과의 비교 연구들도 증가 추세인 점은 세계화 시대에 적절한 논제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복식사의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면서 현대 패션에 우리의 전통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통복식 주제가 높은 것은 연구대상으로의 심도가 높은 이유도 있겠으나 전통복식을 주로 다루는 학회지가 연구대상 학회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 이유라고 생각된다.

3) 학술지별 연구방법

연구방법의 분류는 실험(실험 또는 준실험설계), 설문조사(비실험설계에 의한 설문조사), 측정연구(객관적 자료 조사로 의복구성분야의 인체치수측정), 질적연구(사례연구, 면접조사, 유물연구), 문헌연구 등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학술지별로 연구주

<표 7> 학술지별 연구방법

편(%)

학술지명	실험법	설문조사	계측연구	문헌연구	질적연구 (면접/유물연구)	계
한국의류학회지	151(25)	255(43)	54(9)	109(18)	31(5)	600(100)
복식	23(6)	91(25)	17(5)	213(58)	24(6)	368(100)
복식문화연구	27(9)	83(29)	12(4)	161(55)	8(3)	291(100)
한국의류산업학회지	91(44)	54(26)	17(8)	42(21)	1(1)	205(100)
패션비즈니스	18(9)	64(33)	9(5)	92(46)	13(7)	196(100)
한복문화	5(4)	9(8)	2(2)	97(81)	6(5)	119(100)
대한가정학회지	36(24)	64(44)	17(12)	18(12)	12(8)	147(100)
한국생활과학회지	11(19)	26(46)	4(7)	11(19)	5(9)	57(100)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3)	1(33)	-	1(33)	-	3(100)
총계	363(18)	647(33)	132(7)	744(37)	100(5)	1,986(100)

학회지별 연구방법은 논문에 따라 복수로 처리된 것이 있음.

〈표 8〉 의류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연구주제

편(%)

학술지명	피복과학	의복구성	패션마케팅	복식디자인	기타	계
CTRJ	5(6)	8(9)	48(56)	19(22)	6(7)	86(100)
IJCS	47(48)	45(47)	2(2)	1(1)	2(2)	97(100)
합계	52(29)	53(29)	50(27)	20(11)	8(4)	183(100)

제가 다르듯이 연구방법도 차이를 보였다(표 7). 대한가정학회지와 한국의류학회지는 타 학술지에 비해 설문조사와 실험이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균형있는 분포를 보였다. 한국의류산업학회지에는 실험이 44%, 한국생활과학회지에서는 설문연구가 46%, 패션비즈니스에는 문헌연구가 46%와 설문조사가 33% 등으로 주종을 이루었다. 복식지, 복식문화연구 및 한복문화는 모두 문헌연구가 50% 이상이었는 데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가정학회지와 한국의류학회지에는 인체치수 측정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계측연구 그리고 사례연구나 면접조사와 같은 질적 연구도 있었다.

4) 외국학술지와의 연구동향 비교

국내 의류학 분야의 연구를 외국과 비교하기 위해서 의류학의 여러 분야를 비교적 폭넓게 게재하고 있는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USA)와 Int J of Clothing Sci and Technology의 2종을 선정하였다(〈표 8〉). 먼저 논문의 양적인 비교를 해보면 2종의 학회지에 게재된 외국의 논문은 2000년부터 2003년 현재 총 183편으로 국내 논문의 수보다는 훨씬 적었다. 이는 국내 논문보다 의류학 관련 논문의 종류도 적을 뿐 만 아니라 일년에 4번 정도 밖에 발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피복과학의 경우 신소재의 개발과 개발된 신소재 특성에 따른 이미지 효과나 봉제성의 변화 등 직물이 입체적인 의복으로 제조되기 위하여는 디자인, 구성기법을 예측할 수 있는 실용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감성, 고기능성 소재의 개발, 환경친화적 소재의 개발과 범용제품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복구성분야를 보면 국내의 모두 인체 측정과

착의시 신체적합성과 쾌적성에 대한 착의 평가가 아울러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외에서는 양적으로 많지 않아도 연구주제에 있어서 2차원 및 3차원 인체계측에 따른 인체형상 및 인체치수나 의류치수와 아울러 특수 신소재의 개발과 병행하여 특수작업복, 기능복의 설계, 패턴 및 봉제 및 봉합방법, 자동화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 등 보다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패션마케팅분야의 외국논문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 연구주제에서 국내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반면, 외국의 연구들은 판매자, 구매자, 또는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의류학 분야의 연구들의 주제와 연구방법을 살펴본 바로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와 근본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디자인 분야의 논문이 국내에 비해 적었는데, 이는 디자인 분야의 논문을 중점적으로 게재하는 별도의 학회지가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내의 연구는 일부 주제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외국의 연구는 수는 적어도 다양하다는 점과 의류 소비자의 관점에서보다는 의류산업 전반의 생산자, 공급자, 유통 및 판매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3. 아동학 연구

1) 분석대상 학술지

가정학의 아동학 분야에서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학술지는 2종이며 이 중 아동학 분야만의 논문을 실는 아동학회지, 아동권리연구와 종합학술지인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9> 아동학 분야의 분석대상 학술지

학술지명	학진등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아동학 논문수
아동권리연구	02하 등재	2권	2권	2권	2권	8권(62편)	33편(53.2%)
아동학회지	03 등재	4권	4권	6권	3권	17권(246편)	246편(100%)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9하 등후	4권	6권	6권	4권	20권(291편)	51편(17.5%)
대한가정학회지	01상 등재	12권	12권	12권	8권	44권(592편)	147편(24.8%)
한국생활과학회지	03 등후	4권	4권	4권	3권	15권(142편)	21편(14.8%)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03 등후	2권	2권	3권	1권	8권(53편)	7편(13.2%)
총계		28권	30권	33권	21권	112권(1386편)	505편(36.4%)

<표 10> 학술지별 연구주제

학술지	편(%)						계
	인지	사회정서	신체	이론 및 방법	아동권리 및 정책	문화비교	
아동권리연구	-	13(21)	1(1.6)	1(1.6)	47(75.8)	-	62(100)
아동학회지	61(24.8)	123(50)	3(1.2)	27(11)	24(9.8)	8(3.3)	246(100)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9)	38(74.5)	-	1(2.0)	8(15.7)	1(2.0)	51(100)
대한가정학회지	21(14.3)	108(73.5)	1(0.7)	4(2.7)	10(6.8)	3(2.0)	147(100)
한국생활과학회지	3(14.3)	10(47.6)	-	3(14.3)	4(19)	1(4.8)	21(100)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14.3)	3(42.9)	-	-	3(42.9)	-	7(100)
총계	89(16.7)	295(55.2)	5(0.9)	36(6.7)	96(18.0)	13(2.4)	534(100)

조사한 학회지의 권수와 논문 수, 가정학배경의 아동학과(관련전공)소속 교수가 포함된 논문 수는 <표 9>와 같다. 아동권리연구에서 아동학전공 교수 논문은 53.2%(33편)이었다. 반면, 아동학회지는 100%(246편)가 아동학관련 교수들의 논문들이었다. 한편, 통합학술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에는 17.5%(51편)와 가정학회지에는 24.8%(147편)를 차지하여 이들 학술지에서 아동학의 연구활동이 활발하였다.

2) 학술지별 연구주제

아동학 분야의 연구주제를 크게 6가지 - 인지, 사회정서, 신체, 이론 및 방법, 아동권리 및 정책, 문화비교로 나누어 본 결과<표 10>, 사회정서(55.2%), 아동권리 및 정책(18.0%), 인지(16.7%), 이론 및 방법(6.7%), 문화비교(2.4%), 신체(0.9%)의 순이었다. 아동학의 연구는 사회정서분야로 집중적으로 몰려있으며 아직 미미하지만 2000년도 이전보다는 문화비교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아동의 사회정

서영역의 연구 중 아동의 사이버중독증과 같은 컴퓨터 관련연구가 2000년도 이후 증가하였다.

3) 학술지별 연구방법

아동학 분야의 연구방법을 5가지로 나누어 활용 비율을 구한 결과<표 11>, 설문조사(60%), 실험법(10.9%), 면접조사(10.5%), 관찰조사(9.3%), 문헌연구(9.1%)의 순서였다. 어느 학회지에서나 설문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아동권리연구는 다른 학회지보다 상대적으로 문헌연구가 많았다.

4) 외국학술지의 연구주제

아동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SRCD의 Child Development지는 신체발달, 지각/인지·언어/ 사회·정서 발달/ 관계와 상호작용/ 가족, 학교, 지역사회 의 5개 분야로 나누어 논문을 각 분야마다 양적으로 균형 있게 골고루 실고 있다. 그리고 연구방법도 실험과 면접 등의 방법이 골고루

<표 11> 학술지별 연구방법

편(%)

학술지	실험법	설문조사	면접연구	문헌연구	관찰조사	기타	계
아동권리연구	3(4.8)	26(41.9)	6(9.7)	26(41.9)	1(1.6)	-	62(100)
아동학회지	43(17.5)	118(48.0)	29(11.8)	16(6.5)	37(15)	3(1.2)	246(100)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0)	46(90.2)	4(7.8)	-	-	-	51(100)
대안가정학회지	5(3.4)	112(76.2)	14(9.5)	3(2.0)	9(6.1)	4(2.7)	147(100)
한국생활과학회지	-	15(71.4)	5(23.8)	-	1(4.8)	-	7(100)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	7(100)	-	-	-	-	21(100)
총계	52(9.7)	324(60.7)	58(10.9)	46(8.6)	48(9.0)	7(1.3)	534(100)

<표 12> 가족학 분야의 분석대상 학술지

학술지명	학진등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가족학 논문수
가족과 문화	02상 등후	2권	2권	3권	2권	9권(44편)	20편(45.5%)
한국가족관계학회지	03 등후	2권	2권	3권	2권	9권(66편)	66편(100%)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9하 등후	4권	6권	6권	4권	20권(291편)	70편(24.0%)
대안가정학회지	01상 등재	12권	12권	12권	8권	44권(592편)	115편(19.4%)
한국생활과학회지	03 등후	2권	2권	3권	1권	8권(53편)	3편(5.7%)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03 등후	4권	4권	4권	3권	15권(142편)	10편(7.0%)
총계		26권	28권	31권	20권	105권(1188편)	284편(23.9%)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 국내학회지에서는 주제에 있어서 사회정서분야의 연구로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연구방법에서도 설문조사위주로 이루어지는 성향이 있다.

4. 가족학 연구

1) 분석대상 학술지

가정학의 가족학 분야에서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후보 학술지는 4종이며 이 중 가정학 배경을 가진 가족학자가 주로 논문을 실는 한국가족관계학회지, 가족과 문화와 종합학술지인 대안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한 학회지의 권수와 논문 수, 가정학 배경의 가족학과(관련전공)소속 교수가 포함된 논문 수는 <표 12>와 같았다. 가족과 문화에서 가정학 배경의 가족학전공 교수논문은 45%(20편)이었고 사회학과 또는 사회복지학과교수들의 논문이 절반을 차지한 반면, 한국가

족관계학회지는 100%(66편)가 가족학관련 교수의 논문이었다. 한편, 통합학술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에는 24%(70편)가, 대안가정학회지에는 19.4%(115편)가 가족학 교수의 논문이었다.

2) 학술지별 연구주제

가족학 분야의 연구주제를 크게 4가지 결혼의 질(부부관계, 결혼의 안정성...), 부모-자녀관계, 가족복지 및 정책, 상담 및 교육으로 나누어 본 결과<표 13>, 결혼의 질(27.3%), 가족복지 및 정책(21.8%), 상담 및 교육(20.5%), 부모-자녀관계(18.5%)의 순으로 모든 분야가 골고루 연구되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2000년도 이전보다는 가족복지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사회학과나 사회복지학과와의 학제간 연구도 활발하였다.

3) 학술지별 연구방법

가족학 분야의 연구방법을 5가지로 나누어 활용

<표 13> 학술지별 연구주제

편(%)

학술지	결혼의 질	부모-자녀관계	가족복지 및 정책	상담 및 교육	기타	계
가족과 문화	10(22.7)	8(18.2)	12(27.3)	4(9.1)	10(22.7)	44(100)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33.3)	6(9.1)	14(21.2)	16(24.2)	8(12.1)	66(100)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7.1)	18(25.7)	11(15.7)	18(25.7)	4(5.7)	70(100)
대한가정학회지	31(27)	21(18.3)	27(23.5)	21(18.3)	15(13.1)	115(100)
한국생활과학회지	1(10.0)	3(30.0)	2(20.0)	4(40.0)	-	10(100)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3.3)	1(33.3)	1(33.3)	-	-	3(100)
총계	84(27.3)	57(18.5)	67(21.8)	63(20.5)	37(12.0)	308(100)

<표 14> 학술지별 연구방법

편(%)

학술지	실험법	설문조사	면접연구	문헌연구	관찰조사	기타	계
가족과 문화	-	20(45.5)	8(18.2)	16(36.4)	-	-	44(100)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6.1)	35(53.0)	15(22.7)	11(16.7)	1(1.5)	-	66(100)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9)	58(82.9)	5(7.1)	5(7.1)	-	-	70(100)
대한가정학회지	1(0.9)	85(73.9)	11(9.6)	14(12.2)	2(1.7)	2(1.7)	115(100)
한국생활과학회지	-	8(80.0)	-	2(20.2)	-	-	10(100)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	2(66.7)	1(33.3)	-	-	-	3(100)
총계	7(2.3)	208(67.5)	40(13)	48(15.6)	3(1.0)	2(0.6)	308(100)

비율을 구한 결과<표 14>, 설문조사(67.5%), 문헌연구(15.6%), 면접조사(13.0%), 관찰조사(1.0%), 실험법(2.3%)의 순서였다. 어느 학회지에서나 설문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가족과 문화는 다른 학회지보다 상대적으로 문헌연구가 많았다.

4) 외국학술지의 연구주제

가족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NCFR의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지는 청소년 문제, 아동학대, 동거, 이혼, 재혼, 가족건강성, 가족내 공격성, 적응, 아동양육, 부모-자녀관계 등 다양한 가족 연구주제에 대한 논문을 실는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중단연구를 한 연구들이 있고 설문지를 주로 사용하였다. 가족학 국내학회지와 비교하자면 부모-자녀관계와 아동양육에 대한 논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실렸다는 점이다.

5. 가정관리/소비자학 연구

1) 분석대상 학술지

가정관리/소비자 분야의 분석대상 학술지는 <표 15>와 같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인 소비자학연구와 등재후보인 소비문화연구는 가정학뿐 아니라 의류학, 식품영양학, 경영학, 법학등 소비자 관련 연구들이 포함되는 학술지이다. 등재후보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는 가정관리/소비자학 분야뿐만 아니라 가정학 분야의 주거, 아동, 가족 등의 광의의 가정관리학을 포함하는 학술지이다. 가정학과 관련된 종합 학술지인 3종을 포함하여 총 6종 학술지에 실린 논문 1308편 중에서 가정관리/소비자분야 논문 수는 31.0%(405편)를 차지하였다. 각 학술지별로는 한국가정관리학회지에 39.9%(116편)와 소비자학연구에 49.3%(71편), 소비문화연구에 63.4%(52편)가 게재되었다. 대한가정학회지에 실린 논문은 22.6%(134편)로서 가장 편수가 많았다.

<표 15> 가정관리 및 소비자학 분야의 분석대상 학술지

학술지명	학진등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가정관리및소비자 논문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9하 등후	4권	6권	6권	4권	20권(291편)	116편(39.9%)
소비자학연구	01하 등재	4권	4권	4권	2권	14권(144편)	71편(49.3%)
소비문화연구	03 등후	3권	3권	3권	2권	11권(86편)	52편(63.4%)
대한가정학회지	01상 등재	12권	12권	12권	8권	44권(592편)	134편(22.6%)
한국생활과학회지	03 등후	4권	4권	4권	3권	15권(142편)	20편(14.1%)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03 등후	2권	2권	3권	1권	8권(53편)	12편(22.6%)
총계		29권	31권	32권	20권	112권(1308편)	405편(31.0%)

2) 학술지별 연구주제

학술지별로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총 405편 중 소비자의사결정/상담 주제가 2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가계경제/재무설계로 20.2%였다. 가장 적게 다루어진 주제가 공공가정/가족기업 주제로 3.5%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에는 소비자의사결정/상담, 소비자보호/정책 및 가계경제/재무설계가 21.2%, 17.3% 및 21.3%로 많았는데 이는 2000년의 각각 16.4%, 10.7% 및 17.2%에 비해 많이 증가한 주제들이다. 반면 공공가정/가족기업의 주제는 2000년에 비해 매년 크게 감소하였다.

3) 학술지별 연구방법

학술지별 연구방법을 살펴보면<표 17> 설문조사가 56%(227편)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18.8%의 논문이 문헌조사를 통한 연구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16.3%가 기존통계자료를 이용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주로 통계청 자료나 대우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면접조사는 8.4%과 실험법은 0.5%이었으며 이는 소비자학연구에만 게재되었다. 관찰을 통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4) 외국학술지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외국학술지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특징을 살

<표 16> 학술지별 연구주제

편(%)

학술지	가사노동 /생활시간	관리행동 /생활정보	공공가정 /가족기업	소비자교육 /정보	소비자의사 결정/상담	소비자보호 /정책	가계경제 /재무설계	소비패턴 /문화	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9.8)	29(25.0)	8(6.9)	6(5.2)	11(9.5)	6(5.2)	24(20.7)	9(7.8)	116(100)	
소비자학연구	-	-	-	10(14.1)	20(28.2)	11(15.5)	14(19.7)	16(22.5)	71(100)	
소비문화연구	1(1.9)	-	-	4(7.7)	17(32.7)	11(21.2)	9(17.3)	10(19.2)	52(100)	
대한가정학회지	11(8.2)	22(16.4)	6(4.5)	16(11.9)	30(22.4)	15(11.2)	29(21.6)	5(3.7)	134(100)	
한국생활과학회지	2(10.0)	1(5.0)	-	1(5.0)	7(35.0)	3(15.0)	3(15.0)	3(15.0)	20(100)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3)	3(25.0)	-	2(16.7)	1(8.3)	2(16.7)	3(25.0)	-	12(100)	
총 계	38(9.4)	55(13.6)	14(3.5)	39(9.6)	86(21.2)	48(11.9)	82(20.2)	43(10.6)	405(100)	
연도별	2000	12(9.8)	18(14.8)	9(7.4)	13(10.7)	20(16.4)	13(10.7)	21(17.2)	16(13.1)	122(100)
	2001	11(11.1)	10(10.1)	3(3.0)	11(11.1)	20(20.2)	11(11.1)	22(22.2)	11(11.1)	99(100)
	2002	10(9.2)	16(14.7)	1(0.9)	9(8.3)	27(24.8)	11(10.1)	23(21.1)	12(11.1)	109(100)
	2003	5(6.7)	11(14.7)	1(1.3)	6(8.0)	19(25.3)	13(17.3)	16(21.3)	4(5.3)	75(100)

〈표 17〉 학술지별 연구방법

편(%)

학술지	실험법	설문조사	면접연구	문헌연구	기존통계 자료이용	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57(49.1)	10(8.6)	29(25.0)	20(17.2)	116(100)	
소비자학연구	2(2.8)	35(49.3)	5(7.0)	18(25.4)	11(15.5)	71(100)	
소비문화연구	-	41(78.8)	1(1.9)	7(13.5)	3(5.8)	52(100)	
대한가정학회지	-	72(53.7)	16(11.9)	19(14.2)	27(20.1)	134(100)	
한국생활과학회지	-	14(70.0)	2(10.0)	1(5.0)	3(15.0)	20(100)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	8(66.7)	-	2(16.7)	2(16.7)	12(100)	
총 계	2(0.5)	227(56.0)	34(8.4)	76(18.8)	66(16.3)	405(100)	
연도별	2000	1(0.8)	63(51.6)	14(11.5)	25(20.5)	19(15.6)	122(100)
	2001	-	59(59.6)	6(6.1)	22(22.2)	12(12.1)	99(100)
	2002	1(0.9)	57(52.3)	8(7.3)	22(20.2)	21(19.3)	109(100)
	2003	-	48(64.0)	6(8.0)	7(9.3)	14(18.7)	75(100)

〈표 18〉 국제학술지(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의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편(%)

연구주제	가사노동 /생활시간	관리행동 /생활정보	공공가정 /가족기업	소비자교육 /정보	소비자의사 결정/상당	소비자보호 /정책	가계경제 /재무설계	소비패턴 /문화	계
	1(6.7)	1(6.7)	1(6.7)	3(20.0)	2(13.3)	1(6.7)	4(26.7)	2(13.3)	
연구방법	실험	설문조사	면접조사	문헌조사	관찰		기존통계자료이용	계	
	-	5(33.3)	1(6.75)	3(20.0)	1(6.7)		5(33.3)		15(100)

2000, 34권 1호 및 2003, 37권 1호를 분석함

펴보고 국내학술지와의 비교를 하기 위하여 대표적 인 가정관리/소비자 분야의 외국학술지인 Journal of Consumer Affairs(2000년 34권 1호와 2003년 37권 1호)의 주제와 연구방법은 〈표 18〉과 같다. 가정관리/소비자학 분야의 연구주제 중 가계경제/재무설계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교육/정보를 다룬 논문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각 연구주제를 골고루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Journal of Consumer Affairs에 게재된 논문들이 사용한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국내학술지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가 50%정도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면접조사, 관찰조사, 기존통계자료를 이용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6. 주거학 연구

1) 분석대상 학술지

주거분야의 분석대상 학술지는 다음 〈표 19〉와 같으며 총 1320편 중 152편이었다. 주거분야에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나 등재지 중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과 주택연구는 가정학분야의 논문이 많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장 논문이 많이 게재되는 경우가 한국주거학회지였는데 그 중 38.8%(94편)가 가정학분야의 주거학 분야 저자의 논문이었고 나머지는 건축분야, 실내디자인 분야 등의 저자가 연구한 논문이었다.

주거학회지의 경우 2000년에는 주거정책과 주거계획이 각각 44%와 40%이었는데 2003년에도 42.9%와 38.1%로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3) 학술지별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표 21>과 같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설문조사(45.7%)가 가장 많이 다루어진 연구방법이었으며 그 다음이 문헌조사(21.2%)이었다. 주거분야의 특징으로 관찰을 이용한 연구가 다른 분야보다 많이 다루어져 15.2%를 차지하였다.

7. 가정교육학 연구

1) 분석대상 학술지

가정교과 교육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해방이후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학교교육에서 필수 교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가정(家庭)교육에서도 기본 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교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교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정교과교육도 지대한 관심과 연구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정과 교육과 관련된 학회 활동으로는 '한국가정교육학회'를 비롯하여 '실과교육학회', '대한가정학회' 등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가정교육학회'는 대학의 가정교육과 교수들과 중등현장에서 뛰고 있는 교사들의 연구물들의 보고가 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부터 2003년 8월 현재까지 총 8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한국실과교

육학회지'는 초등실과교육과 관련된 논문이 주로 연구되고 있는데 19.3%가 게재되었다. '대한가정학회지'에서 가정과 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1997년도까지 1.8%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9.1%로 많은 발전을 하였으나 한국생활과학회지나 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에는 그 수가 아주 적었다. 각 학회지별 총 논문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2) 학술지별 연구주제

논문 주제별로 살펴보면 교육자료 관련 논문이 50.9%로 가장 많았고, 교수·학습 관련 논문이 24.6%, 교육과정 논문이 17.9% 순으로 게재되었고, 교육평가 논문은 3.0%, 교육철학 및 교사교육, 교육행정 관련 논문은 각각 1.2%로 아주 적게 게재되었다. 학회별로 살펴보면 한국가정교육학회에서는 총 81편의 논문에서 교육자료가 42.0%, 교수·학습 30.9%, 교육과정 19.8%, 교육평가와 교육행정이 각각 4.9%와 2.5%의 순이었다. 교사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1편도 게재되지 않았다. 한국실과교육학회에서는 가정교과교육과 관련된 논문이 28편으로 다른 학회와는 달리 교수·학습 관련 논문이 3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과정, 교육자료, 교육철학, 교육평가 및 교사교육자료가 각각 28.6%, 21.4%, 7.1%, 3.6%로 게재되었다. 대한가정학회에서는 가정교과 교육과 관련된 논문 54편 중 교육자료 관련 논문이 8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수·학습, 교육과정 및 교사교육이 각각 11.1%, 3.7%, 1.9% 순이었다. 교육철학과 교육평가 및 교육행정 관련 논문은 한 편도 게재되지 않았다. 또한,

<표 22> 가정교육학 분야의 분석대상 학술지

학술지명	학진단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가정교육학논문수
한국가정교육학회지	00하 등후	3	3	3	1	10권(81편)	81(100%)
한국실과교육학회지	01상 등후	4	4	4	2	14권(145편)	28(19.3%)
대한가정학회지	01상 등재	12	12	12	8	44권(592편)	54(9.2%)
한국생활과학회지	03 등후	4	4	4	3	15권(142편)	2(0.1%)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03 등후	2	2	3	1	8권(53편)	2(0.4%)
총 계		25	25	26	15	91권(1013편)	167(16.5%)

〈표 23〉 학술지별 연구주제

편(%)

학술지명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자료	교사교육	교육행정	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	16(19.8)	25(30.9)	4(4.9)	34(42.0)	-	2(2.5)	81(100)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7.1)	8(28.6)	10(35.7)	1(3.6)	6(21.4)	1(3.6)	-	28(100)
대한가정학회지	-	2(3.7)	6(11.1)	-	45(83.3)	1(1.9)	-	54(100)
한국생활과학학회지	-	2(100.0)	-	-	-	-	-	2(100)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학회지	-	2(100.0)	-	-	-	-	-	2(100)
총계	2(1.2)	30(17.9)	41(24.6)	5(3.0)	85(50.9)	2(1.2)	2(1.2)	167(100)

〈표 24〉 학술지별 연구방법

편(%)

학술지명	실험법	설문조사	면접연구	문헌연구	관찰연구	기타	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2(14.8)	52(64.2)	1(1.2)	12(14.8)	-	4(4.9)	81(100)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1(39.3)	4(14.3)	-	12(42.9)	-	1(3.5)	28(100)
대한가정학회지	-	44(81.5)	-	6(11.1)	1(1.8)	3(5.6)	54(100)
한국생활과학학회지	-	1(50.0)	-	1(50.0)	-	-	2(100)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학회지	-	-	-	2(100.0)	-	-	2(100)
총계	23(13.8)	101(60.4)	1(0.6)	33(19.8)	1(0.6)	8(4.8)	167(100)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교과 교육과 관련한 논문으로 가족관계 영역의 논문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청소년관련 연구로 교육과 관련이 많아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논문주제별 게재논문을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3) 학술지별 연구방법

연구방법별 논문 게재수로 살펴보면 〈표 24〉, 전반적으로 설문조사 연구논문이 총 163편 중 101편으로 60.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대상이 학생이어서 설문조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가정학회의 경우 81.5%가 설문조사, 19.8%가 문헌연구와 13.8%가 실험연구였고, 면접연구와 관찰연구가 각각 1편이 게재되었다. 학회지 별로 살펴보면 한국가정교육학회지는 설문조사연구가 64.2%로 가장 많았고 문헌연구와 실험연구가 각각 14.8%가 게재되었다. 한국실과교육학회지는 다른 학회와 달리 문헌연구가 42.9%로 가장 많았고 실험연구가 39.3%, 설문조사연구가 14.3%로 게재되었다. 대한가정학회는 대부분이 설문조사이었고 문헌연구가 11.1%였으며 면접

연구와 관찰연구는 없었다.

4) 외국학술지의 연구

미국가정학회지(Journal of Family & Consumer Sciences)의 가정교육과 관련된 논문들로는 2000년에 게재된 'The post-modern perspective on Home Economics History'와 'Business protocol and etiquette: preparing students for th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등이었는데 가정학의 관련된 논문과 사회예비생들을 위한 교육 등에 관련한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Family & Consumer Sciences Educators can play significant roles in curbing school violence'과 'Health care and family consumer sciences education: An integrative approach' 등으로 가정과교사들의 역할과 가정학과 건강과의 관계를 논하는 논문 등이 게재되었는데 이 해에 가장 많이 연구가 활발하였다. 2002년에는 교육과정에 관련된 논문으로 'Enhancing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curriculum and enrollment: integration and engagement' 등이 게재되었고, 2003년도에는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 25> 미국가정학회지(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의 분야별 논문수

발행년도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정관리 및 소비	가족 및 아동학	가정교과교육	기타	계
2000	3	1	3	5	14	12	10	48
2001	3	3	-	1	10	29	12	58
2002	10	-	-	13	11	18	16	68
2003	-	2	-	2	13	15	9	41
총계	16	6	3	21	48	74	47	215

자료로 'Multicultural classrooms: Implications for family & consumer sciences teachers' 등이 게재되었고, 'Financial champions: curriculum builds financial capacity in youth' 등의 경제교육에 관한 내용들도 있었다.

또한, 기타 영역으로 분류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주로 사회 이슈와 맞물린 내용들이 많은데 이는 가정과 내용이 사회 현상과 같이 해야 함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Diversity and Globalization: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Promise', 'The voices of the future', 'A critical interpretation of leadership for the New Millennium', 'Professional Ethics: caught and taught', 'Advocating success for all' 등이 게재되었다. 2003년도에는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patients' rights', 'Voluntary Simplicity: creating a sustainable future' 등의 내용이 게재되었는데 사회적 현상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다.

IV. 미국가정학회지 분석

미국의 가정학과 관련이 있는 학회지는 미국가정학회(AHEA)지로 1906년에 석사논문이 처음으로 게재되면서 발전을 거듭하여 오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1983년에 Family & Consumer Sciences로 그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가정학과 관련이 있는 학회지로는 JFCSE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Education)와 JFC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FCSRJ (Family &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JVER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등 4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JFCS가 그 중심이 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게재된 논문 수는 총 215편으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정관리 및 소비생활, 가족관계 및 아동학, 가정교과교육, 기타 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표 25>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영역의 논문은 각각 16편, 6편, 3편으로 주생활 영역은 2001년 이후에는 연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가정관리 및 소비영역이 48편으로 22.33%이었고, 가정교과교육 관련 논문은 74편으로 34.42%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기타 영역으로는 주로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논문들이 대부분으로 21.86%로 대체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가정학 분야의 연구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인간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학문적 기여가 생기며 결국 생활과 밀접한 실용 연구를 해야 활용도가 높고 이는 곧 가정학 배경의 정체성을 세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이 보다 다양하게 연구되어야 하며 연구의 평가나 지원에서 가정학 분야의 연구를 <이학>의 타순수자연과학 학문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학문적 세계화를 추구하는 현대 학사회에서 외국학술지를 강조하는 추세가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바람직한 면을 고려하여 외국학술지에 게재를 노력하여 세계화시대의 가정학

발전을 도모하고 외국학술지와 국내학술지의 연구 주제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극복하여야 한다. 외국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우리나라 가정학자가 주저자로서 연구수행을 노력하여야 한다.

식품영양학의 연구에 있어서 우리는 인체보다 쥐나 미세단위 연구, 성분분석 등 의학이나 생물화학, 식품공학 등의 타 학문과 중복되는 연구주제가 지나치게 높고 식물성화합물 등 어떤 특정 연구주제에 쏠리는 경향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식품영양학이 학문분류상 <의학>에 속해서 순수 자연과학과 같은 흐름이 요구된다거나, 대학이나 연구비지원에서 SCI 논문이 필요하므로 가능성 있는 SCI학술지를 염두에 둔다거나 하는 등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우리 스스로도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활에의 연구 활용도에 비중을 두는지의 자성이 필요하다.

의류학의 경우 글로벌시대를 맞아 의류패션산업의 생산환경, 시장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급격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의 시각을 이렇게 가변적인 환경에 맞추어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소비자의 관점보다는 생산자, 공급자의 관점에 눈높이를 맞추어 시대의 변화에 유연한 대처와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디지털시대를 맞아 컴퓨터 및 통신기술을 의류산업에 접목시키고 개성과 감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의 차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mass customization이나 e-tailor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학 분야는 1947년 대학에 가정과가 설치된 이후 연구가 시작되어 양적 질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구영역이 보다 세분화되고 또한 심리학적 패러다임을 따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아동학연구는 국내연구보다 아동학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등에 있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화노력이 요구된다.

가족학 분야는 1947년 대학에 가정과가 설치된 이후 연구가 시작되어 양적 질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구영역에 있어

보다 다양화되고 가족복지 및 정책분야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가족이론의 실천적 사회적용이란 점에서 바람직하다. 앞으로 가족학 연구는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등에 있어 보다 다양하게 연구되고 실천적 장과 관련되는 연구가 활성화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가정관리/소비자학 분야는 학제적인 연구가 많아지면서 연구주제를 분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가정학 분야의 다른 영역(의류, 식품 등)과의 학제적인 연구는 물론, 가정학 분야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분명 가정학에 관련이 있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었다. 연구방법에서는 설문조사에 치중되어 더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노력이 마련되어야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국내에서 발간된 학술지를 모두 분석하지 않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와 등재후보 학술지 중 가정학관련 학술지 26종을 분석한 점이다. 또한 2000년 이후 2003년 8월까지 발간된 학술지만을 다루었고, 외국학회의 분석에서 분야별로 많은 학술지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가정학의 각 분야 중에서도 세부 전공이 다른 연구자가 그 분야를 모두 총괄하여 분석, 종합 전망을 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가정학의 최신정보 I(1977), II(1989), III(1990). 대한 가정학회
- 박명희, 김은애, 승정자, 김대년, 옥선화, 이승신, 윤인경, 정주원(2001): 1950-2000년의 가정학의 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이승신(2002): 가정학 분야의 학술지 등급평가. 학술진흥재단 보고서, 비공개자료.
- 황덕순, 한경미, 홍은실(1995):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한가정학회지 논문 내용 분석- 1959년부터 1994년까지. 대한가정학회지, 33(3), 17-30.
- E.F. Myers, P. Beyer, C.J, Geiger (2003). Research activities and perspectives of research members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JADA 1235-1243 (Sept).

Journal Citation Reports (2003), Science Edition.
<http://www.krf.or.kr>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생활과학회지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영양학회, 한국영양학회지 2000년 - 2003년 8월호.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조리과학회, 한국조리과학회지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000년 - 2003년 8월호.
 동아시아식생활학회,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식품과학회지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복식학회, 복식 2000년 - 2003년 8월호.
 복식문화학회, 복식문화연구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의류산업학회,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패션비즈니스 2000년 - 2003년 8월호.
 한복문화학회, 한복문화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권리연구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아동학회, 한국아동학회지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학연구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소비문화학회, 소비문화연구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학회지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가정교교육학회, 한국가정교교육학회지 2000년 - 2003년 8월호.
 한국실과교육학회,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000년 - 2003년 8월호.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2000년 - 2003년 8월호.
 Family &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000년 - 2003년 8월호.
 Journal of clothing sciences and technology, 2000년 - 2003년 8월호.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00년 - 2003년 8월호.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education, 2000년 - 2003년 8월호.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00년 - 2003년 8월호.

(2003년 11월 27일 접수, 2003년 12월 24일 채택)